

CAM RATTI

캄보디아 7기

3월호

90

나랏말쑥미

캄보디아에 달아

캄림의 손짓발짓

크메르어 정복기

KT&G 사회봉사단

바칼로레아

우리 생각

우리 모두

함께 할 그날까지

캄림이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3월 일정표

3월, '방피이야기'

빵퍼 베이커리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들
프놈피라운 · 톤크네어 유치원

하늘을 날아서

프놈끄라운 중학교까지

캄보디아팀의 첫 만남

그렇게 춥던 겨울에 만났던 다섯 명은 이렇게 더운 여름을 만나러 캄보디아를 갈 준비를 했다.



국내 훈련

우리는 왜 라온아띠가 되려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만날 그곳으로 갈 마음다짐을 하며 설렘을 추슬렀다.



지역 NGO 인턴십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우고!



3
주
후

수원 YMCA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하며 그곳에서의 이별과 이곳에 대한 만남을 준비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면세점도 가고 싶고, 많이 구경하고 싶다~” 말하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우리 다섯 명.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잠시 대기 후 환승

우리는 모든 공항이 인천공항 같은 줄 알았다. 선부른 판단이었다.



환승역으로 내린 베트남공항은 1층과 2층이 끝이었다. 30분 돌아다니니 할 것이 바닥 나버렸다 ㅠㅠ

다일식구들과의 첫 만남

우리를 반겨주신, 5개월 동안 함께 웃게 될 다일 가족들과의 첫 만남. 우리가 받았던 라일락의 꽃향기는 잊지 못한다!

이틀 후, 밥퍼 투입

우리 캄팀은 시차도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밥퍼로 투입! 숙소에서 매일 먹는 한국 밥상, 씨엠립 거리의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단체. 적응하기에는 너무도 익숙한 것들이 많아서 일까? 긴 적응 없이 우리는 다음을 시작했다.



드디어 캄보디아 공항 도착

저녁 7시 20분 !!!! 무사히도 우리는 도착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



3월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	6	7	8	9	10	11
		입국, 자기 소개	〈휴무일〉 다일시설견학, 시장탐방, 영란주임님생일파티	밥퍼OT, 밥퍼 정수키트정리, 창고정리 대박집	밥퍼, 물품정리	예배, 쓰루끄루영어배, 답지원사업견학
12	13	14	15	16	17	18
밥퍼OT, 밥퍼 다일클리닉 창고정리	밥퍼, 빵퍼, 아동결연선물 포장, 크메르어수업 시작	밥퍼, 빵퍼, 김성재집사님 배 크메르어시험, 한국학교교장 선생님면담, 해원협과 저녁식사, 바칼로레아 (주제:밥)	밥퍼, 빵퍼, 쫄크니어, 프놈끄라운 사전방문, 찐눈선생님송별회	밥퍼, 빵퍼, 명진간사님생일파티	한글학교교육 시작, 르은이성금전 달	예배(선택자) 레드피아노
19	20	21	22	23	24	25
밥퍼, 빵퍼, 대사관님방문, 이모세원장님 엄기봉집사님 입국(블루핑 킨방문)	밥퍼, 빵퍼, 옥상청소, K-TV촬영시작, 대박집	밥퍼, 빵퍼, 샤브샤브, K-TV촬영, 바칼로레아 (주제:연애) 경서교통사고	밥퍼, 빵퍼, 화장실청소, 쫄크니어사전 방문, 진짜루	밥퍼, 빵퍼, 쫄크니어유치원 교육시작, 프놈끄라운중학교 교육시작, 김계숙선생님 댁방문	한글학교	예배(선택자), 지현생일파티, KT&G공항마중 (선택자)
26	27	28	29	30	31	
밥퍼, 빵퍼, KT&G봉사단 활동시작 (위생교육, 집짓기)	밥퍼, 빵퍼, 집짓기, 배만 들기	밥퍼, 빵퍼, 프놈끄라운유치원교육시작, 프놈끄라운중학교교육	밥퍼, 빵퍼, 스텝한글어시험, 후원물품운반	밥퍼, 빵퍼, 프놈끄라운중학교	한글학교, 진짜루회식	



밥퍼는 다일의 가장 대표적이고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인 밥퍼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는 다일을 만났다. 우리는 프놈크라운(산 밑의 마을이라는 뜻)에 사는 아이들을 점심 밥퍼 시간에 만나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점심을 준비한다. ‘이 밥먹고 밥이 되’ 게 하려는 희망을 품고 점심을 준비한다.



만남의 광장. 밥퍼는 우리 아띠들에게는 만남의 광장이고 언어의 배움터이다. 매일 매일 밥을 먹으면서 스스로 밥퍼일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다 먹은 식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이와, 옆에 앉자 같이 식판 설거지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공부한 크메르어 실습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밥
퍼를 하고 있지만 첫 날
밥퍼를 하고 서로 나누었
던 이야기들과 피드백은
그리 즐겁고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아이
의 눈을 보며 “어쿤 프레
아 예수” 하며 밥을 주지
만 아이들은 식판에만 눈
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다. 또 밥



을 먹은 후 챙겨온 비닐봉지에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해 남
은 음식을 싸가는 모습, 5-6살 된 아이가 1-2살의 자기 동
생을 옆으로 안고 밥을 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며 23, 25살
먹은 아띠들의 철없음을 반성하고 있다.

처음 밥퍼를 보며 진짜 밥만 퍼주는 것은 아닌지, 단지 시혜적, 호혜적 시선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밥퍼
의 공짜 밥이 지역사회의 자생력과 생리는 막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했다. 하지만 다일은 밥만 퍼주는 곳이 아니
라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밥으로 지역사회를 만나고 밥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띠들 또한 밥퍼를 통해
스텝들을 만났고 새로운 꼬마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밥퍼에 즐겁게 매진하고 있으니까.

꿈틀 꿈틀. 하루 이틀 밥퍼를 하면서 아띠들은 아띠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냈다! 바로 식사가
끝난 후 엄청난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배식소와 너무도 강
력해 한 번의 설거지만으로 손이 벗겨지게 하는 세제! 배식
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쓰레기가 대신 앉아
있다. 특히 껍질을 벗겨먹는 과일이 나오는 날이면 온 사방
에 과일껍질이 “찌란 찌란~” 이다ㅠㅠ 그래서 쓰레기통
을 만들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쓰레기쌈” 을 만들어
불러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현재는 고민 중에
“만” 있다. ^^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주방세제문제! 이것
은 손 뿐만 아니라 설거지하고 버리는 물이 바로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래서 아띠들은 인터넷을 뒤져 쌀뜨물로 세제를 만드는 법
습득!! 이제 곧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대하시라!!

이제는 가장 즐겁게 밥퍼에서 프놈크라운을 만나고 있다! ^^



빵퍼 베이커리

소보루



가장 많이 만드는 빵

도너츠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빵

야채빵

사진은
다음기회에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는 영양만점 빵

사진은

다음기회에

단팥빵

달지 않으면서 맛있지만 가끔 만드는 빵

집이 멀어 밥퍼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빵퍼.



또한 밥퍼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자라 스텝으로 일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는 곳.
이곳은 현지 사람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본 취지에 대한 의문

밥퍼를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빵을 받기보다는 밥퍼에 온 아이들이 또 받는 경우가 많았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빵이 그저 아이들의 간식거리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프놈펜에 보내지는 빵

프놈펜에도 밥퍼가 있는데 밥퍼에서 밥이 나갈 수 없을 때에는 빵이 나간다. 그때 캄보디아에서 보낸 빵들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고민했던 빵퍼의 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단조로운 일상

메뉴가 많지 않아 같은 빵을 만드는 날이 많다. 물론 맛있고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제빵 기술을 배우는 스텝들은 다른 빵을 만들 기회가 없다. 그래서 빵퍼 일이 끝난 후 스텝들이 남아 다른 메뉴를 개발하며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건강간식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 아이들에게 빵퍼의 빵은 건강에 좋은 간식이 될 수도 있다.

공동체에서의 빵퍼에 대한 생각

빵을 마을의 상점들에게 아주 싸게 팔고 그 상점에서 현지인들에게 싸게 사는 방식으로 하면 다일과 마을과 사람이 하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상점에 빵을 배분하지 않으면 상권 분쟁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빵퍼, 라온아띠의 맛있는 생각

빵퍼 매니저의 전문성 향상

현지 스텝들의 제빵 기술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서라도 제빵자격증이 있는 매니저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메뉴 개발만 보더라도 품질(맛과 모양),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만드는 과정의 최소화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제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12.03.28 뿌어쓰다이!
프눔끄라운 유치원 오전반
아이들과의 두근두근 첫 만남♥



12.03.28 뿌어쓰다이!
프눔끄라운 유치원 오전반
아이들과의 두근두근 첫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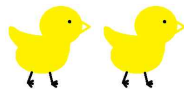


12.04.02 야호! 과자파티다~~
졸츠남을 맞아 방학을 하는 날
맛있는 과자와 음료를 나누어주자
한껏 신나있는 아이들♥



쭉크니어 유치원은 2009년 KT&G와 다일공동체의 후원으로 설립된 수상 유치원으로 ‘샘물다일유치원’이라 불린다. 수상유치원답게 학교가 배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물 위에 떠있는 구조이다. 현재 100여명의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후의 초등교육의 부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쭉크니어 마을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되었고, 설립 초기에 비해 학생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인식도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진행 될 우리들의 활동은 프놈끄라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수업이다.

3월 20일. 쭉크니어 유치원에서의 활동 시작과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다. 유치원 측에서 사전에 수업에 색종이 지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놀이를 하였다. 색종이로 매미를 접어 아이들에게 매미라는 곤충 소개와 매미의 울음소리에 대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4월 2일에는 KT&G봉사단의 방문으로 쭉크니어 유치원은 과자파티를 열었다. 쫄츠남을 앞두고 방학식날 아이들에게 봉사단이 준비해 온 과자를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3월 16일, 앞으로 진행 될 활동들에 대하여 유치원 교장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활동 시작 시간 및 유치원 측의 당부 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3월 28일, 드디어 프놈끄라운 유치원 활동시작 및 아이들과의 첫 만남의 날이다.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종이에 자신의 얼굴 그리기 수업을 진행. 종이의 뒷면에는 한글로 아이들의 이름을 듣고 적어주는 작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한 명 한명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수원시청이 설립하였고, 다일공동체와의 결연을 통해 운영되는 곳이다. 학생의 수에 비해 교실이 부족하여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곳의 유치원은 한국의 유치원과 달리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수업이 따로 배정되어있지 않아 우리가 해야 할 주된 활동은 예체능 수업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의 해님반과 달님반의 수업이 진행된다.



역시나 부족한 크메르어.

아직 크메르어가 부족하여 아이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 그냥 웃으며 ‘짜(응, 그래)’와 ‘엇짜(최고)’로만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 크메르어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수동적인 아이들의 태도?

활동에서 진행된 종이접기와 그리기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였다. 처음에는 이것을 아이들의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진지한 고민과 회의를 통하여 과연 우리의 수업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고, 참여를 이끌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의 수업에 있어서는 철저히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찍기 방법.

프놈프라운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쓰고 사진 찍기를 할 때에는 앞으로의 원활한 활동과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몸 앞에 들게 하고 사진을 찍는 과정이 마치 죄수가 번호판을 들고 있는 듯하게 보여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웃음보다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진행 된 수업.

유치원 활동은 아직 두 곳 모두 한 번의 수업밖에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쯡크니어 유치원에서 진행하였던 매미 접기에서 매미모양을 보고도 아이들이 알지 못하였고, ‘멤멤’이라는 울음소리를 내었을 때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가 캄보디아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다.



하늘을 날아서

프놈끄라운 중학교까지

우리들의 활동

3월 23일,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일찍 하교한 9학년 수업을 제외하고 타 학년은 학생들과의 인사시간 및 한국어 인지 정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월 28일, 두 번째 수업. 7학년과 8학년은 자음, 모음의 기초 한글 수업을 하였고, 9학년은 첫 수업이었으므로 학생들의 한글 수준 확인을 위한 테스트 및 학생들의 이름표 만들기 수업을 하였다.

3월 30일, 세 번째 수업을 위해 방문한 학교. 그런데! ‘폴츠남’이라는 캄보디아의 큰 명절로 인하여 2주간 학교의 방학이 시작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다. 따라서 교실 대청소 및 방학식 준비로 인해 수업진행 불가했다.

생각하나, 학교 측의 적극적인

관심부족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시간’을 배정한 것에 비하여 학교 측에서의 관심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활동의 시작 일정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당일 9학년의 이른 하교를 하였고 때문이다.)

생각두울, 모두를 이끌고 갈 것인가?

한 반에 관심이 있는 부류와 없는 부류의 친구들로 나뉜다.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들로 인해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없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한국어가 하나의 제 2 외국어인 만큼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반 운영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학생일지라도 수업시간에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가요 및 문화 등을 통해 한글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 한다. 또한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kb국민은행이 설립한 도서관 2층의 찜라아띠(라운아띠가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의 한국어 교실로 이끌고 와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한국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생각세엿, 우리들의 크메르어 실력 향상의 필요성

한국어 수업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직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글 단어의 전달에 있어서 크메르어의 사용도 필요한 만큼 우리들의 지속적인 크메르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프놈끄라운중학교 '한글교실'

프놈끄라운은 프놈: 산, 끄라운:아래로서 ‘산 아래’라는 의미의 마을이다. 프놈끄라운 중학교는 경기도의 수원시청이 지었다. 이곳에서 아띠의 주된 활동은 학생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에 7학년(경서, 하늘), 8학년(성희), 9학년(정민, 나래)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이 운영된다.

나랏말쑥미캬보디으에달아
문쭙와로서르스뭇디아니새
이런전츄로어린백성이
니르고저훈배이셔도
므춤내제뜨들시러퍼디
못^훈노미하니라
르온으띠가이름왕하야
어엿비너겨
흔글을글르치노니
흔글학고학생마다하여
스비니겨날르쓰메
뻔한키하고저^훈딕르미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는 한인교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한글학교”가 있다.

기초반, 유치반, 1~6학년을 포함하여 약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국어와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3월17일부터 첫 수업을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 10시 ~ 1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반, 유치반, 1~6학년 국어와 수학반에 골고루 배치됨)

전 기수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다. 들은 내용과 정보가 많으니 짜증이 나도 원인을 자꾸만 “전 기수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데..”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반성했다.

타국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이 나이대의 아이들의 모습이 이러한지... 예의 없는 아이들의 행실이 많이 보였고 이 부분의 지도가 시급하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한글학교를 한국친구를 만나러 오는 곳으로 생각하는 듯 하고, 이에 따른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여기에 왜 있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

수학 과목의 경우, 아이들이 가장 보습과 과외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한국 아이들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한다. 타국에서도 한국아이들과 비교에 급급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것을 천천히 하지 않는 모습 안타깝다.

BUT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해라,~가르쳐야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Man to Man의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 걱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싶고 또한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화는 자유롭게 가능 하지만 읽기, 쓰기 실력이 부족해서 수업에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캠프의 손짓 발짓



2번의 수업 동안에 “김성재 집사님 배 \$150 TEST” 를 보았는데 아띠 포함 총 8명 중 하늘, 정민, 시온(해원협)이 공동 1등으로 상금을 탔다. 상금으로는 다일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레드피아노” 라는 맛집에 가서 신나게 외식을~!!! 앗호^^



현지 생활 적응 과정 중 제일 중요한 크메르어 수업은 주3회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3월 한달 동안 이런 저런 사정상 2번 수업을 했다. 우리 다일 센터에서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잇몸 미남 찐눈” 선생님과 함께 실생활에 당장 적용 가능한 짧은 문장을 묻고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찐눈 선생님이 사정상 일을 그만두신 관계로 수업이 없고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크메르어 정복기

다일 공동체도 많이 바쁘고 담당 선생님도 없는 상황에서 크메르어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수업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필요할 땐 언제나 현지 스태프에게 물어 볼 수 있고 또한 팀끼리 스터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지속성과 디테일한 표현법과 관련해서는 전문 선생님의 필요성을 느낀다. 소통에 언어가 중요한 만큼 잘 배워서 현지 스태프 및 아이들의 깊은 마음까지 알고 싶다.

사회복지 봉사단 KT&G

캠팀의 생각

다일에서 일주일간 함께한 KT&G 봉사단. 아띠들은 KT&G 봉사단이 머리에 이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약품을 지원해주고, 정리가 잘 된 후원 물품으로 다일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일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물에서 기른 물로 씻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생수로 양치와 세수를 하고, 집짓기가 완성 된 집에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과,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모습, 그리고 사소한 활동에서 봉사 기간 동안 일만 해주면 된다는 모습 속에서 현지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쉬움이 컸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띠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국내 훈련에서 찾을 수 있었다. 큰 것이 아닌 활동하는 곳에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예의. 그러한 예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지속적인 국내훈련이기. 단기 봉사자들 또한 짧은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파견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단기봉사단이 지녀야 할 결과 물적 측면이 아닌 가라는 한계 아닌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 KT&G 봉사단이 머무는 일주일의 시간은 아쉬움과 힘든 점이 많았지만, 우리에게 이번 경험은 장차 다일을 찾는 다수의 봉사자들 앞에서 지녀야 할 운영적인 측면의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고, 우리가 다일식구들과 더욱 친밀해 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이어가고 있다.

KT&G 봉사단은

KT&G 사회복지 해외 봉사단 팀은 KT&G 사측과 서울시 구청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모집, 선발의 과정을 거친 후 파견한 해외 봉사단으로써, 수년 간 다일 공동체와 함께 캄보디아 내에서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는 봉사단이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

자기 소유의 땅이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생교육

캄보디아 아이들은 상황적 여건 때문에 양치는 물론 머리조차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기에, 치약, 칫솔, 이 제거 약품과 샴푸 등을 지원하여 꾸준한 위생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 만들기 사업

쭉크니어 수상 마을 주민들은 배가 생계유지에 가장 필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자녀들의 지속적인 교육 유지에도 피해를 입기에 배를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다일 중창단과 KT&G 측에서 준비한 공연을 함께 교류

바칼로레아

특정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프랑스의 수능 시험



1차 바칼로레아: 밥

어느 날, 다섯의 청춘이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바.칼.로.레.아. 그들의 역사적인 첫 주제는 바로 밥. 아 이 얼마나 정이 돌아나는 주제란 말인가~ 이 주제를 제시한 아띠이 말한다. “밥.. 그것은 눈물 젖은 밥이다. ‘눈물 젖은 밥’ 그렇다, 밥이란 것은 우리 삶의 모습과 성장과정, 아픔과 기쁨을 담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한다. “밥은 스트레스다, 밥은 인간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젓가락질에 대한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던 그 순간, 여주의 아들이 말한다. “열. 마. 지. 기”

아 열. 마. 지. 기 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풍요로움이 아닌 그 속에 있었던 노력과 장차 국제 사회 빈곤에 대해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왜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노라 하는 복지 국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복지의 자본은 결국 제3세계에서 착취 되는 자본인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구시민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들은 지역과 국가에 대한 문제는 그 뿌리인 국민, 지역 주민이 열쇠를 지녔다는 의견을 모으며, 국내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지역 속에서의 관심이 옳은 관심이란 결론으로 제 1회 바칼로레아를 마치게 되었다.



아띠와 바칼로레아?

캠팀은 국내 훈련 중 무빙 스쿨 프로그램으로 방문하였던 “품”에서의 강렬했던 바칼로레아의 기억을 되새겨, 정형화된 회의, 토론이 아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팀원들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바칼로레아 활동을 준비 하였다.

진행방식은 매주 금요일 회의 때마다 팀원이 번갈아 가며 주제를 선정한 후 돌아오는 수요일에 카페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보고서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야 할 기간에는 바칼로레아 활동을 생략 가능토록 하였다.

캠핑에게 서로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바칼로레아 시간은 나만의 생각이 아닌, 한정된 주제에 갇힌 생각이 아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생각하여야 하는 바칼로레아 시간이 두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가 보다 깊게 생각하고,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기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며, 장차 정치, 사회 이슈 등 보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2차 바칼로레아: 연애

-일주일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모였다. 우리에게 연애란? 연애.

"연애는 호기심이다, 비교다, 상담이다. 등 다양한 이야기와 자신들의 과거 역사가 나오며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흐르던 그 순간.

"아~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내가 주제를 잘 정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주제 제시자 아띠1 앞에 아띠2의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가 들려온다.

"연애는 무서워." 그렇다, 아띠2는 연애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지니고 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순간, 두렵지 않고 정말로 잘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두렵지 않은 연애.' 그것은

"때로는 너무 진지한 만남을 염두 해 두지 않는 것, 자신이 바라던 연애 방식에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던 찰나. 아띠3이 진중하게 말한다.

"연애는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띠로리~~~ 그 순간, 모두의 머리에 종이가 울렸다.

"함께 발전해 나간다. 함께 발전해 나간다. 함께 발전해 나간다. 함께 발전해 나간다!"

바로 이것이다. 연애.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아띠 청년들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대화를 한 마디의 문장으로 순식간에 마무리 짓게 되고, 각자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며 바칼로레아를 마무리 한다. "우리 라온아띠 7기 중에선 커플이 나올까??"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바칼로레아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닥칠 그 아찔한 상황을...정서야...

우리생각

3월이 10분 남은 지금 이 시점. 프놈프라운에서의 한달을 생각한다. 출국 전 캠프에서 아나간사님이 말씀해주신 다르게 생각하기 시간을 갖었지만 막상 도착하니 다르게 생각하지 못했다. 조금은 부정적 시선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과 저러한 부정적 생각들을 하면서 나에게 “그래서 뭐 어쩔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유구무언이었다. 비판적 시각은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크지 않았고 위대하지 않았다. 사무국에서 말했던 대로 여기서 폐 안끼치고 잘 살다오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마다 떠올랐다. 그래. 지금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집중하고 즐기자!

어쨌든 5개월의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한다면 하는 생각이 문뜩 들었다. 내가 즐기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을 견디며, 악쓰며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자신이 즐겁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이 답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답인 듯 하다. 답을 알면서 답을 모르는 모순이….

한글학교와 프놈프라운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관심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것인가. 요즘 한글수업을 시작하며 그리고 찰라아피를 준비하며 떠오르는 고민이다. 지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관심있고 흥미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팀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더욱 복잡한 고민으로 깊어가고 있다. 선택한 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쪽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소외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다. 하지만 또 배우려고 의지가 강한 아이들의 노력과 눈빛을 보면 더욱 그들에게 집중해주고 싶다. 후… 참 어렵다. 모두다 안고 가겠다는 것이 욕심인 것 같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은 소외, 서열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참으로 복잡하다.

한글학교와 프놈프라운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을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관심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것인가. 요즘 한글수업을 시작하며 그리고 찰라아피를 준비하며 떠오르는 고민이다. 지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관심있고 흥미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팀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더욱 복잡한 고민으로 깊어가고 있다. 선택한 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쪽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소외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다. 하지만 또 배우려고 의지가 강한 아이들의 노력과 눈빛을 보면 더욱 그들에게 집중해주고 싶다. 후… 참 어렵다. 모두다 안고 가겠다는 것이 욕심인 것 같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은 소외, 서열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참으로 복잡하다.

성희 생각



요즘 내가 여기 왜왔나 다시 생각해볼 때 자주 드는 생각이 있다. 내가 여기 한글을 엄청 뛰어나게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 성적 잘나오게, 공부 잘하게 만드려고 온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했을 때. 지금 드는 생각은 관계다. 좋은 친구들 몇 명만 만들고 돌아간다면 5개월의 시간 성공한 것 아닐까? 내 이름을 먼저 불러 주는 아이들,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나 또한 그들의 이름과, 깊은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 하나라도 만들면 성공한 것 아닐까? 욕심을 버리고 많은 것을 바라지 말자. 소소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생활하자. 그리고 싶다.

하늘 생각

다일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게 되면 처음 이곳에 왔던 순간이 기억난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페로 혹은 들이치는 뜨거운 공기. 약간의 답답함과 함께 정말 이곳에 왔다는 현실감이 들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달리면서 맞는 바람은 기대와 설렘처럼 달달한 맛이 나기도 했다.

밥퍼와 빵퍼를 시작하고부터는 집에만 돌아오면 너무 피곤했다. 한글학교를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과 유치원 수업을 준비하면서는 더욱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 때마다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스텝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은 어느새 까마득한 옛날이 된 것만 같았다.

국내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지구시민이나 아시아적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이곳에서의 생활. 350ppm 캠페인을 위해 시작하자던 개인 운동을 지키기에도 급급했다. 그래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한 가지, 나는 단기봉사자가 아니라는 것. 이곳에 찾아오는 수 십 명의 단기봉사자들을 보며 어쩌면 내가 라온아띠에 지원하지 않고 저들과 같은 단기봉사자가 되었다면 나 또한 물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나 아이들과 가까워지겠다는 노력들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화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아시아적 감수성이나 지구시민과 같은 거창한 이름을 달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매일 출근길과 퇴근길, 트럭에 몸을 싣고 차가 지나온 길을 바라본다. 오토바이 한 대에 온갖 짐을 싣고, 혹은 온 가족이 타고 지나간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보이고 결혼으로 떠들썩한 풍경도 기암 프레임에 들어온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저싸다며 깎아달라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 더 달라고 떼쓰기도 한다. 피부색이 얼마나 다른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 똑같다. 이것이 내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와 지금과의 가장 큰 생각의 차이. 뜨거운 공기로 전해졌던 이질감은 이제 없다.

나는 매일 한국어와 크메르어를 섞어가며 이곳 사람들과 웃고 장난친다. 말을 잘 몰라도 언제나 웃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나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다름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

4월에는 조금 더 마을 곳곳을 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끝.

3월 7일 설렘을 가득 안고 도착한 인천공항. 이제는 정말 7기 30명으로서가 아닌 오롯이 우리 캄보디아팀 5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괜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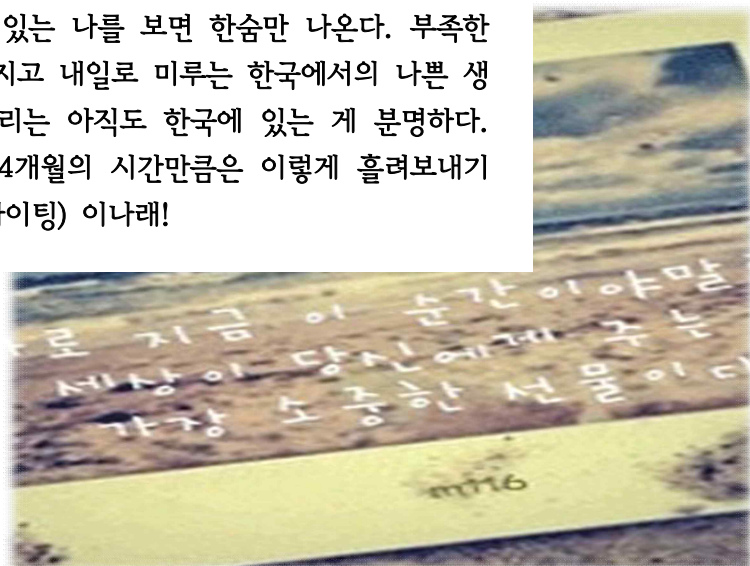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겠습니다.” 라는 승무원의 말에 ‘과연 이나래, 너 정말 잘 살고 올 준비가 되어있니?’ 라는 물음이 떠오르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대와 설렘,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도착한 씨엠립. 습한 날씨였지 이 공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마치 부족한 나를 이곳에 받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내에서의 두려움을 살짝 씻어 주었다.

3월 9일 본격적으로 우리의 활동이 시작되는 하루이다. 우리는 프놈프라운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다일공동체’에 소속되어 앞으로의 5개월을 활동한다. 이 곳의 주된 일이 밥퍼(마을 아이들을 위한 급식)에 참여한다니! 라온아띠 면접 때 “나래 학생은 그럼 다른 친구들보다 현지에서 이걸 잘 할 수 있다 하는 건 뭔가?” 라는 물음에 “할 줄 아는 것은 없지만 개그로 스텝들과 웃음을 주고, 부족하지만 요리를 통해 지친 팀원들 및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나의 대답이 생각났다. 하루 400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식당 안은 너무 분주하였다. 그러나 아직 현지어가 부족하여 현지 스텝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치 ‘저는 구경 온 손님입니다.’ 하는 것처럼 주변만 서성이고 있었다. ‘이나래 이러면 안돼. 른른(빨리빨리) 하게, 그리고 싸아익(웃어요)’ 내 속에서 이런 외침이 울리는 첫 날이었다. 하지만 밥퍼 3일째가 될 때부터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우리들. 밥퍼의 주 메뉴이자 손이 많이 가는 부침개크기의 계란말이도 한번에 척척 뒤집는 정민이와 경서, 당근을 강판에 퍽퍽 갈고 있는 하늘, 뜨거울 불 앞에서 솥단지의 고기를 볶고 있는 성희, 뜨거운 계란말이를 맨 손으로 찢어도 뜨겁지 않은 나. 조금이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난다. 또 처음에는 많은 식판을 설거지하면서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교육활동 및 여러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생각과 고민들이 늘어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밥퍼 활동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버렸다.

3월 16일 어느 덧 우리의 활동의 하나인 중학교와 유치원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아직 현지언어가 부족한 내가 과연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역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아이들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나 따로 아이들 따로, 서로 한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가? 캄보디아의 큰 명절인 ‘졸츠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교육활동들이 4월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활동할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활동들이 늦어져 걱정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뿐이다.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이 벌써 한달이 되었다. 그런데 나의 몸은 캄보디아에 있지만 아직 나의 생각은 한국에 있는 것일까? 밥퍼에 오는 아이들의 미소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주는 원완, 까슬랑, 마까랑 등의 친구들이 있어 너무 행복하지만 이 친구들의 물음에 그냥 웃으며 “짜(응), 남 하어 이?(밥 먹었어?), 남 아오이 증안(맛있게 먹어).만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부족한 현지언어를 더욱 배우려 노력해야 하는데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내일로 미루는 한국에서의 나쁜 생활버릇이 이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의 머리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아쉽게 모든 것들이 흘러가버린 3월. 하지만 남은 4개월의 시간만큼은 이렇게 흘러보내기 싫다. 다시한번 마음을 다 잡고 이제는 달려들자 떠으술란(파이팅) 이나래!

나래 생각



1. 박치기

어느 날 밥퍼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아, 생각이 없어서 좋다. 그냥 설거지만 해서 좋다...” 라고.

그리고 떠올랐다.

불과 얼마 전까지 “김정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없이 살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라며 내 자신을 다그치며 읊었던 말을.

나에게 묻는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될까 안 될까’ 를 재면서 지나쳤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앞세워 타협하고 합리화시켰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죽어라 생각만 하던 그 시간들이 결국엔 나를 힘들게 했고 몸과 마음까지 지치게 하지 않았던가.

생각으로는 온갖 bad story를 써도, 정작 해보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면서도 몰랐던 걸까?!

생각이 미운뎃냐다.(문제가 있어!) 고로, 생각! 생각! 생각? 이젠 그거 적당히 해야겠다.

우선은 부딪혀 보고! 깨져 보고! 온 몸으로 느껴보고! 생각 할란다.(REAL캄보디아! 내가 간다!!)

good afternoon

2. Accident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그 동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어색했다.

그런데 이번 경서 사건(특특이 사고)을 통해서 내 두 눈 가득히 느낀 점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닌데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고 살았던,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주위를 공기처럼 감싸고 나와 함께 같은 공간, 시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의 벽돌 같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어찌나 후회되던지.. 어찌나 내 모습이 차갑고 모질게만 느껴지던지...

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스스로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표현하자'이다.

지금 축.복.해.주.고 지금 안.아.주.고 지금 사.랑.한.다.말.하.자!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천천히 전하고 싶다.

진짜 내 마음!!! (고맙습니다 네악♥♥♥♥♥)

정민 생각

정신없이 흘러갔던 국내 훈련을 마치고, 방화에서 출국 전 날 밤을 새겠다며 버티다 비행기에서 졸도한 상태로 캄보디아에 들어 온지 어느덧 한 달. 날씨에 적응하고, 현지어에 적응하고, 눈에 보이는 달라진 풍경에 적응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적응이란 과정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 공감 100% -

어느 덧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득 한국에서 내가 들은 말 중에서 이곳에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봤다. 훈련, 주위 사람, 가족 등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말을 나에게 해주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6기 분 들이 말해주신 “가 보면 알아요.” 이 말이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니 한국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은 부딪히기 전에 지레 겁먹은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 부딪혀야 답이 나온다. 앞으로의 캄보디아 활동에서도 모든 것에 겁 없이 부딪혀 봐야겠다. (단, 툭툭이에는 부딪히지 않겠다.)

- 생각 -

한 달을 보내면서 나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발전했는가?”

언제나 무엇인가 경험하지 못한 활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다짐은, “발전하겠다.” 이 말인 듯하다. 나 역시 캄보디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전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다짐을 안고 당차게 이 땅에 들어왔지만, 현재로써 내가 느끼는 나 자신은 ‘발전’ 이 아닌 ‘변화’ 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의 변화, 삶의 패턴의 변화, 신체의 변화 등, 난 현재 발전이 아닌 변화를 안고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도 이곳에서 발전, 성장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그러한 성장을 느끼고 싶지는 않다. 이곳에서만 성장의 의미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간 한국에서의 성장,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발전이고 성장 이기에 앞으로 캄보디아에서는 현실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잘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좋은 일은 무엇인가?”

다일 공동체에서 지내다 보면 외부 봉사자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 분들은 항상 우리를 보며, “젊은 나이에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 분들이 말하시는 좋은 일은 무엇일까? 이다. 밥 퍼 활동? 빵퍼 활동? 교육 활동? 저 분들이 말하는 좋은 일이란 활동에 한정 된 것일까? 모르겠다. 답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곳에서의 좋은 일은 그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울리는 어울림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일정에 있어서도 활동하는 내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해본다.

우 리 모 두
함 께 할 그 날 까 지

